



한뼉 한뼉 화엄세계 장엄

단청장 홍점석 옹

40년 단청 외길

붉은빛 푸른빛이 서로 어우러지고, 기와 아래에서부터 문상살까지 이어지는 공간마다 아름다운 빛깔의 향연이 이어진다. 그 속에서 연꽃은 활짝 피어나고, 구름은 여유로이 떠다니며, 두 마리의 학까지 날아올라 화엄세계를 장엄한다.

한 뼉 한 뼉 빛깔을 입혀, 건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일 단청(丹靑).

단청은 건축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그 본래의 목적보다는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우리 감성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는 대표적인 불교 예술의 한 분야다.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홍점석 옹(63)은 40여년을 우리 단청의 아름다움을 오늘에 되살리는 데 전념해 온 장인이다.

그는 조선 중기부터 이어진 화사의 계보를 이은 옛 원덕문 스님의 수제자이다.

맨 처음 홍씨가 단청을 접한 것은 개운사 지장전 불사를 하러온 김한수 씨를 만나면서이다. 일찍이 뱃을 들었다가 김 씨를 따라 나선지 6년 뒤 덕문 스님을 만나 본격적인 공부부를 하게 됐다. 이후 1969년 조계종 총무원에서 주최한 전국 10대 사찰 단청문양조사사업 때, 풍도사 단청문양 모사작업의 조원으로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당시 조사책임자였던 덕문 스님을 처음 만났다. 그때 뛰어난 미적 자질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스님의 문하에 들어가 정식 금어(鎏魚, 단청·불화·불상에 조예가 있는 사람을 일컫는 수업을 받았다. 72년 덕문 스님과 함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산 스님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단청문양 연구보존을 위한 '단청문양보존연구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92년 덕문 스님이 입적하자, 스승의 대를 이어 98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으로 지정되었다.

원덕문 스님의 수제자

홍 옹은 설악산 봉정암, 오세암, 서울 도선사, 전복 금사 등 국내 사찰과 일본 경도의 보현사 고려사, 미국 하와이 대원사 등의 단청 작업을 도맡아 했다. 지난해에는 울산 한 마음선원 단청불사를 맡아 오채금장으로 현현한 화엄장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단청(丹靑)이라는 것은 붉은 단(丹)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주인은 무시하고, 청(靑)을 주로 한 '청단(靑丹)'이 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제가 그린 단청을 모두 붉다고 하는데, 붉은 것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조선 단청의 전통입니다."

"단청질"을 업으로 삼으면서 숭한 어려움에 처했지만, 홍 옹은 심사의 현실과 타협하

지 않았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불제자답게 난관을 헤쳐 나갔다. 얼마든지 권법을 써서 물질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절대 양심에 꺼리는 일은 하지 않았다.

"새로운 기법을 응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타산이나 맞추려고 색과 문양수를 줄여 단청을 하는 요즘의 세태가 안타깝습니다."

단청에 사용되는 물감들은 대부분이 천연의 재료에서 추출한 것들이다. 단청의 면 밑바탕이 되는 양쪽이라는 것도 원래는 조선시대에 늦쇠의 녹을 파내, 그 푸른빛을 추출해 만든 것인데, 얼마전까지 일본에서 수입해 썼으나 더이상 구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홍 옹은 나름대로 양쪽색과 비슷한 물감 몇 가지를 섞어 이리 저리 비율을 맞추어가며 본래의 양쪽색과 가장 가까운 색을 만들어 낸다. 어떤 때에는 이 양쪽색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하루가 꼬박 걸린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도 제 색이 나오지 않자, 천연물감을 구하기 위해 스리랑카, 인도, 이집트까지 발품을 팔고 다녔다. 그러나 기후를 비롯해서, 여러 조건들이 다르다 보니 우리 전통의 단청과는 궁합이 맞지 않아, 제대로 된 작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남은 과제 후진 양성

"정말 엄격하게 말해서 요즘 단청 가운데, 전통 단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료 자체가 전통의 것들이 아니니까요. 색을 입히기 전에 밑그림을 건물에 새겨 넣을 때 사용하는 호본(호개검침을 갈아 만든 하얀 가루만 해도 그렇습니다. 돈 안되는 사업이라 더이상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아교도 공해 때문에 만들지 못하는 행편이요. 답답한 노릇이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모두 페인트로 단청을 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단청을 배우겠다고 홍 옹을 찾아온 이들 가운데 끝까지 단청장인의 길을 걷는 이들이 몇 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처음 10명 이 찾았을 후 5-6년 지나면 그중에 겨우 한명만이 남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홍 옹의 문하에는 윤길수, 김경남, 이옥, 허병길 등 4명의 전수생들이 우리 단청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제자가 주인이고, 저는 종이나 다름없어요. 제자들을 시봉하는 게 제 일인 듯 합니다.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야 할 때이지만, 한 70까지는 제자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인연도 만들어 주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텐데 생각만큼 실선에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글 = 이은자 기자 eeje@buddhapia.com



"전통회화기법 모두 동원했어요"

'Tales from the Temples' 그림 작업 정경심 씨

젊은 화가 정경심 씨(28, 커뮤니케이션즈와우에서 최근 펴낸 생활 창간설화 영역서인 <Tales from the Temples>에서 신선한 감각의 그림으로 책을 압도하고 있다. 강화 전통사, 예산 수덕사 등 고찰 10곳의 설화를 소개한 이 책에서 정씨는 때로는 탁본 느낌으로, 때로는 전통 불화 느낌으로, 그 외에도 민화 풍속화, 추상화 기법을 도입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절집 옛 이야기'에 예술적 향취를 불어넣고 있다. 현재 서울대 대학원 동양학과에 재학 중이며, '죽기 전에 정말 훌륭한 작품 2개만 남기자'는 것이 작은 목표라는 대단한 욕심가의 소유자다. <관련기사 18면

영감 넘치는 그림 책 압도

◆그림 그리기 위해 답사한 사찰은?
"전통사, 운주사, 내소사 등은 이번 작품을 위해 다시 가보고, 나머지 사찰들은 그 전에 이번 작품들과 상관없이 가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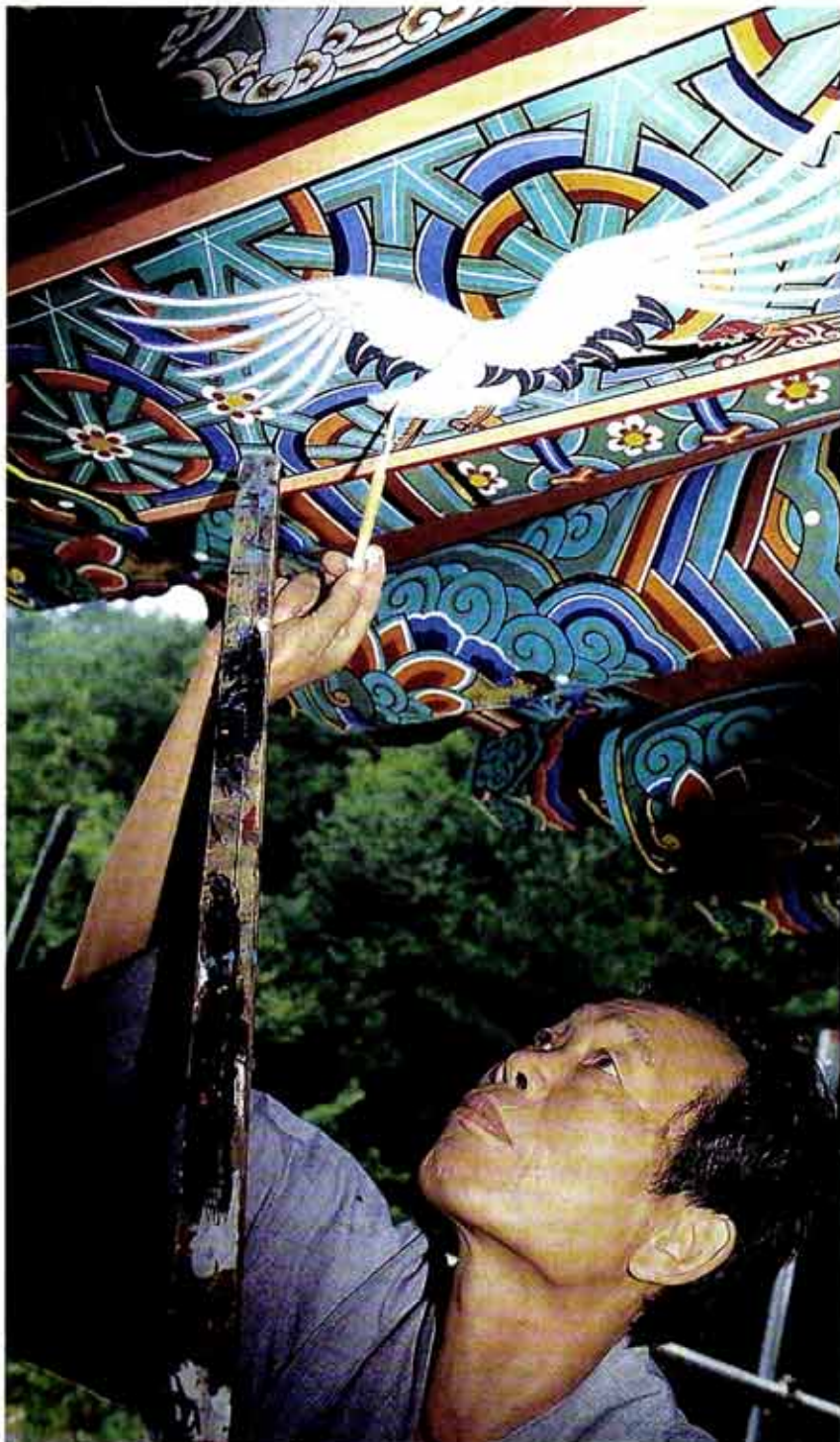
◆사찰에 가서 눈여겨보는 것은?
"그 절이 주는 분위기, 편안함을 찾으려 노력한다. 전통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 내가 가 본 절 가운데 부석사와 운주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부석사는 자연과 어우러져 편안하면서도 웅대함이 느껴지는 절이고, 운주사는 내가 그림을 그려서인지 불상들의 조형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이번 작업에서도 가장 어려웠지만 작업 전체의 방향을 잡아준 그림이 운주사다."

◆어떤 방식으로 그렸고, 작업기간은 얼마나 걸렸나?
"스케치북에 구상을 해본 다음, 원화는 스케치 없이 바로 그렸다. 내가 아는 많은 기법들을 모두 해봐서 즐거운 작업이었다. 여름 3개월 동안 다른 일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일에만 전념했다."

◆하나 하나를 회화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우연히 일러스트 작업을 하게 됐다. 서양 일련도 기법으로 이뤄지는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평소 생각한 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해봤다. 산화를 그린다든 생각으로 하지 않고, 나만의 독창적인 작업이라는 생각으로 임했다. 또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책인 만큼 한국적 아름다움을 살리려 애썼다. 그림만으로도 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종교는?
"지나해 결혼하면서 시댁의 영향으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아직 불자는 아니다. 다만 좋은 작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술가의 몸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남편과 함께 매일 아침 참선 수련을 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40년 가까이 불사의 현장에서 우리 단청의 전통을 지켜온 홍점석 옹은, 붓을 들고 현장에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www.lawonet.co.kr

희담석

"지병에서 벗어나 편안한 수면을 원하십니까?"

희담석 돌침대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능력입니다. 희담원석 중에서 원적외선의 집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였기에 침대 커버나 두꺼운 오를 깔아도 생명에너지가 그대로 투과되므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주고 지병 등이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희담석

"정신집중이 잘 되는 편안한 방석을 원하십니까?"

희담 휴대용 방석은 수험생, 스님, 직장인, 운전자 등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분에게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켜 주는 제품입니다. 희담석은 세포의 활성화, 노폐물 배출, 노화 억제, 항균 방어력 증강, 통증 완화, 기억력과 판단력 향상, 식품의 신선도 제고, 식물 성장 촉진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제품문의

(02)3476-2335(대)
011-9230-2335

희담석의 물, 생명활성 에너지원 - 희담석이란?
희담석(希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희산 흑암으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희산석(현무암)의 일종으로,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열과 같은 여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희담석을 상온 온석과 용해시킨 과정에서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원 가진 것으로 밝혀진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이다.

(주)자원넷
JAWONET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502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